



#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2. 13.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도와드리는

'2024년 중소기업용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드립니다.

중소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 민간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컨설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077](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077)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8호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3-580호, 2023.12.11.)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313](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313)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접수 안내**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을 실시합니다.

- 포상대상: 사용자, 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단체(노.사단체 포함) 임직원 및 학계 등
- 포상내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접수기간: '24.2.5. ~ 2.29.
-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및 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접수방법: 고용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내용은 포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343](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343)

**(참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 명동 음식점 찾아 재해예방 역량 강화 지원 약속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보다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적용이 시작된 1월 27일(토), 28(일) 주말 동안 각자 발로 뛰며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하여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 전국 83.7만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기업체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6](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6)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다짐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4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40)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조속한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총력 다할 것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계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계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 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54](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54)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첫 사고 현장 수습 지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저녁 8시 경 '24.1.3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발생한 50인 미만 첫 번째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 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이다"라고 하면서,

"고철 상하차 및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 일체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면서, 현장 수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수사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5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57)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포천 50인 미만 기업 사고 현장 방문하여 수습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24.2.1.(목)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근로자 1명(52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이다.

2.2.(금)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62](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62)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안내**

**- 2월 7일 '현장점검의 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제조·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붙임1)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7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75)

**(참고)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는 '24.2.6.(화)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7.(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기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8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80)

# 안전보건공단

## 주간 사망사고 속보

- [1/29, 경북 포항시]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맞음
- [1/31, 부산 기장군] 자재 하역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임
- [2/1, 경기 포천시] 크레인으로 운반 중인 코일에 깔림
- [1/30, 강원 정선군] 관로 매설 작업 중 흙더미에 깔림
- [1/31, 강원 평창군] 덕트 연결 작업 중 떨어짐
- [2/1, 경기 평택시] 흙막이 가시설 해체 중 맞음
- [2/1, 경기 안산시] 배관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재
- [2/3, 경기 이천시]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중 떨어짐
- [2/3, 전북 전주시] 지붕 판넬 고정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10.2m)
- [2/6, 서울 서초구] 크레인으로 운반 중이던 H빔이 섬유로프가 파단되며 떨어져 맞음
- [2/6, 경남 함안군] 천막비닐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앞차마가 말리며 끼임
- [2/6, 인천 동구] 폐수처리장 저류조 슬러지 반출작업 중 증독되어 쓰러짐
- [2/7, 경기 파주시] 아크릴 원판 반출 작업 중 아크릴 원판 다발이 넘어져 끼임
- [2/7, 충남 아산시] 지붕 위에서 채광창 해체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떨어짐(4.9m)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정비의견 제출 안내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에 대한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에서는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개발·보급 중이며 현재 1,352건의 지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술기준 추세 및 산업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기술지침을 발굴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24년 안전보건기술지침 제·개정, 통·폐합 및 폐지 등 정비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및 사업장 관계자 등
- 참여방법 : [첨부]의 안전개발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 (sydy10141@kosha.or.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 2. 16(금) 까지
- 현행 지침 검색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KOSHA Guide → 분야별 KOSHA Guide 조회
- 담당자 연락처 : 052-703-0594(전문기술실 기술기준부 김명관 차장)

※ 귀하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표준제정위원회를 통하여 개발 여부가 심의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 개발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90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하청업체 안전보건 투자에 원청 참여 확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참석...  
“공공일터에 대한 중대재해 감축 현장안착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이하 리더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리더회의는 원청·하청 및 발주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 최근 3년간('21년~'23년)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중 약 75% 이상 차지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등 실질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안착 및 정부-공공기관간 공공일터 안전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리더회의는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10대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 ① 국가철도공단,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③ 한국농어촌공사, 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주), ⑥ 한국수자원공사, ⑦ 한국전력공사, ⑧ 한국철도공사, 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 위험성평가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안중주 이사장은 “이번 회의로 안전경영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2.2(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 이하 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은 2월 2일(금)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안전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기업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부터는 사외하청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원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보건투자의 일부를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날 업무협약은 공단의 상생지원 사업과 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상생협력기금을 신청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공동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지원사업장 컨설팅 등 안전보건활동 지원 ▲참여 원청에 대한 외부평가 시 우대 노력 등 기관 별 협약사항에 대하여 상호 추진할 예정이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통해 공정개선을 필요로 하는 하청업체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78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791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오이레터

## 중대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체계 점검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체계 점검**  
- 서울광역시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방문 -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월 2일(금)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시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체계를 점검하였다.

안 이사장은 이날 현장경영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1544-1133)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오는 4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의 혼란·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산재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중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전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793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피레스로이드 살충제, 임산부와 소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레스로이드 살충제는 유기인계 농약을 대체하는 안전한 농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The Lancet에서는 "피레스로이드,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진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실을 통해 피레스로이드 살충제의 주요 대사산물인 3-페녹시벤조산이 미국 성인 인구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최근에는 **태아독성이나 소아신경계 독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어 피레스로이드 살충제의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이레터에서는 이에 관한 최신 동향을 전달해드립니다.

[\[논문\] 미국 일반 성인 인구의 피레스로이드 살충제 노출과 사망 위험 사이의 연관성, 2019](#)  
[\[논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레스로이드 노출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관련성 연구, 2021](#)

### 진드기와 빈대, 살충제 사용의 증가

살충제는 농업에서뿐만 아니라 주거 및 공공장소의 위생 해충 방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땀기열,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집집마다 모기향이나 스프레이 살충제 하나쯤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빈대가 출현하면서 빈대를 퇴치할 수 있는 살충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주거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 피레스로이드(pyrethroid)입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8/>

**“산재관리 의사 시범사업 운영 종료 안내”에 대한 유감**

산재관리 의사 시범사업의 종료

근로복지공단에서 2024. 1. 3 일자로 아래와 같은 “산재관리 의사 시범사업 운영 종료”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1. 평소 산재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산재근로자의 급성기 또는 재활치료 등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산재전문 의사를 임명하여 요양 초기부터 조기 재활치료 활성화와 원활한 직업복귀까지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8년부터 산재관리 의사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시범사업 결과 산재관리 의사의 차별화된 역할과 재활 서비스 연계 등 **주도적 역할에 따른 운영 효과성 미흡** 및 효율적인 산재보험 의료전달 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산재관리 의사 시범사업 종료 (24.1.31.까지 운영)**를 알려드립니다.
4. 그동안 산재관리 의사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산재관리 의사제도의 도입 배경

산재관리 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 제도는 독일에서 1921년부터 운영하는 산재보험 전문의(Durchgangs arzt; D-Arzt)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강당에서 39명의 산재관리 의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그 이후 산재관리 의사를 227명까지 늘렸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9/>

**직업성질환의 단계적 이행과 독성발현경로**

직업성 질환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직업성질환은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주로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노출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은 심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출이 질환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 노출과 질환은 각각 ‘원인’과 ‘결과’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노출과 질환 각각을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성질환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는 ‘노출’과 ‘질환’이 될 것이고, 이 둘은 하나의 화살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의 판정 중 유해인자의 노출과 직업성질환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결국 아래 그림의 ‘노출’과 ‘질환’ 사이에 화살표를 그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출과 질환인지에 따라 화살표가 굵어질 수도,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의 굵기를 우리는 ‘**과학적 근거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노출’에서 ‘질환’까지의 경로

노출과 질환이 관찰가능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노출에서 질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관찰가능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노출과 질환 사이의 화살표 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발역이 서울이고 종착역이 부산인 노선에 대전, 대구 등의 경유역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60/>

**안전보건에서 어떤 리더십이 요구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대, 리더십의 중요성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처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서 **가장 먼저 확립되어야 할 사항은 리더십**입니다. 안전보건 리더십에는 경영자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경영과 안전문화를 이끌어가는 모든 책임자의 리더십을 포함합니다.

안전리더십에 대한 7가지 통찰력

**안전보건에서 리더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Thomas과 Kristen의 "**7 Insights into Safety Leadership**" 이라는 저서에서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조직의 리더가 안전보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안전에 대해 이해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안전 수행능력이 사업 수행능력을 이끈다. (Safety Performance Leads Business Performance)
  - ② 안전 리더십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에 주목하면서 시작된다. (safety leadership starts with attention to serious injuries and fatalities)
  - ③ 안전리더십은 조직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safety leadership —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an organization can do to set improvement in motion)
  - ④ 문화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수행능력을 유지한다.(culture sustains performance — for better or for worse)
  - ⑤ 안전을 선도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작된다.(Leading Safety Starts with Understanding Safety)
  - ⑥ 조직 안전에서 행동의 역할이 중요하다.(The Role of Behavior in Organizational Safety)
  - ⑦ 인지 편향은 안전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Safe Decision Making and Cognitive Bias)
- 그런데, 이러한 안전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발휘되려면 리더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61/>